

세이비어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교회 광고
 - 주일예배는 현장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됩니다.
 - 수요일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 교회 현장예배에 참여하실 때 발열 체크를 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예배는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다음 주(8월 30일) 현장 주일예배 안내

1부예배(10시) 베이사이드, 룡아일랜드 구역

2부예배(11시 30분) 우드사이드, 플러싱 구역

개인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원하시는 시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 얼굴을 맞대어 보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8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 1부	주일 2부	친 교	안 내
08/23		허도행		
08/30	정경학	송명건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9시 30분	본당
주일예배(2부)	주일 오전 11시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00	본당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주일학교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9시 30분	성가대실
성경공부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새가족반	주일 예배 후	1층 친교실

이번 주 설교 요약

제목: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본문: 마태복음 16장 13~24절

- 기도제목: 1.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고백과 바른 성경해석을 할 수 있게 하소서.
2. 자기를 부인하는 삶(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닌)을 살아가게 하소서.
3. 내 자리에서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1.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장소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는 세 명의 분봉왕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시 왕이었던 헤롯의 세 아들이 땅을 나눠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역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 헤롯 빌립이 저 지역을 개발하면서 수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가이사라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로마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황제의 위용을 드러낼 수 있는 황제의 신전도 있고 여러 종류의 우상의 신전들도 있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면 일단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 주는 화려한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황제의 신전이 보이고, 그 당시 세상의 나라 가운데 가장 부강한 나라 로마를 보여 줄 수 있는 건물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2.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와 예수님!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상한 편은 세상의 가장 화려하고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묻고 싶었던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위에 세워진 교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며(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은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 이런 일 보다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상징이 되는 황제의 정신! 크고 힘을 기르고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려는 생각이 교회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운전할 때, 속이 상하는 경우, 앞 차가 차선을 바꿀 때 깜빡이를 켜지 않는 차를 보면 속에서 울분이 솟아납니다. 다른 차들은 신경 안 쓴다는 것입니다. 남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식당에 가서도, 손님은 왕이다! 이 말속에 어떤 생각이 담겨져 있나요? 내가 내 돈을 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손님은 왕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왕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방식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 - 자기 자리에서 짊어져야 하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해야 하는 어려운 일들! 쉽고 편하고 누리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짊어짐으로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가 편안해지고,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리에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면, 세상은 그 일을 통하여 바뀌게 되고,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나가는 말

왜 오늘날 교회의 어려움이 오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고백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 자기 부인과 자신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려는 모습이 부족하기에! 오히려 세상적인 일에 더 관심이 많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황제의 정신이 교회 안에도 가득하기에,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되기 이전의 베드로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 두 가지를 묵묵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8월 16일 헌금 상황

2020년 8월 23일



주일예배		수요예배(8시PM)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경배와 찬양 여호수아서 강해 말씀: 정요한 목사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 송영 Invocation	사회자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임재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33번(시편 150편)	
찬 송 Hymn	513장	
기 도(Prayer)	1부: 이경희 권사 2부: 허도행 집사	
성 경 Scripture	마태복음 16장 13~21절	
설 교 Message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 헌 금 Offering		
▲ 찬 송 Hymn	514장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교육전도사 김호진 Paul Lee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45-25 162nd St Flushing NY 11358
☎ Tel : (718) 673-6448 / www.mysaviorchurch.com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